

규제 비켜간 대형 식자재마트 골목상권·전통시장 피해 속출

‘면적 쪼개기’ 등 꼼수 만연
사실상 대형마트처럼 운영
소공연 “제도개선 절실”

사조그룹 계열사인 푸디스트를 비롯한 대형 식자재마트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대형 식자재마트는 의무휴업, 출점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는 대형마트나 SSM(기업형 슈퍼마켓)과 달리 아무런 제재가 없다.

이때문에 문어발 확장 등 무차별 사업을 통해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에 악영향을 줘 결국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20일 소상공인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식자재마트도 출점제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식자재마트를 ‘오프라인 유통업체

의 포식자’로 칭하고, 식자재마트들이 ▲납품단가 후려치기 ▲입점비 전가 ▲매장·법인 쪼개기 등 불공정거래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아닌 산업부 소관이다. 오세희 의원은 식자재마트 가운데 ‘빅3’로 불리는 푸디스트, 장보고, 세계로가 2024년에만 총 1조457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분석했다.

실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 중 1위인 푸디스트는 지난해 매출만 1조50억원을 거뒀다.

사조씨피케이(68.16%), 사조오양(31.7%) 등 사조그룹이 대주주인 푸디스트는 위탁 급식 사업과 식자재 유통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다. 현재 ‘식자재왕 도매마트’라는 이름으로 서울 상일, 신월, 마포 등에 11곳의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오 의원은 “규제의 공백 속에서 식자재마트의 편법과 불공정거래 행위는 상시화 됐다”면서 “신규 입점시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납품업체에 요구하고, 매장 면적을 3000㎡ 미만으로 쪼개거나 창고로 등록

후 불법 용도변경을 통해 사실상 대형마트처럼 운영하고 있다. 매출액을 1000억원 미만으로 분산하는 ‘법인 쪼개기’로 대규모유통업법도 회피하고 있어 정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3000㎡ 이상의 대형마트,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주인인 165~3000㎡ 규모의 SSM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 관련법 개정안은 900~3000㎡ 미만 식자재마트도 준대규모점포에 포함해 대형마트, SSM과 같이 의무휴업 등의 규제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본부장은 “식자재마트는 24시간 영업과 365일 휴무 없는 사업장 개시로 규제 없이 골목시장을 잡아먹는 ‘공룡’이 되고 있다”면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이들 식자재마트를 등록·입지 제한, 등록·절차 및 지역 협력, 영업 제한 등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대규모유통업법’에는 식자재마트와 입점사업자간 거래 관계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내용을 추가하는 등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왼쪽부터)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 명현관 해남군수, 김영록 전남도지사, 구본규 LS전선 대표이사, 홍영호 LS머트리얼즈 대표이사, 김병욱 LS마린솔루션 대표이사가 20일 전라남도청에서 열린 MOU 체결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LS머트리얼즈

LS머트리얼즈, 전남 해상풍력 사업 본격화

LS마린솔루션-전남도-해남군 MOU

LS머트리얼즈와 LS마린솔루션은 20일 전라남도청에서 전라남도·해남군과 ‘해상풍력 설치항만 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해남군에 조성되는 설치항만은 해상풍력 단지 구축에 필요한 대형 기자재의 조립·적재, 선박 정박, 울트라캐패시터(UC) 기반 모듈 제조 기능을 갖춘 복합 인프라다. 양사는 전남도와 협력해 해당 항만을 해상풍력 밸류체인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오는 2030년까지 약 13GW 규모로 조성될 국내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전진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LS머트리얼즈는 항만 운영 주체로 참여해 부지를 직접 매입하고, 기존 수출 중심의 풍력시장용 UC 모듈 제조사

업을 국내 시장으로 확대한다. LS마린솔루션은 대형 HVDC 포설선의 정박 및 운영 거점으로 항만을 활용하고, 신규 추진 중인 해상풍력지원선(SOV) 사업과 연계해 단지 운영·유지보수 역량을 제고한다.

이번 MOU를 통해 LS전선을 비롯한 관계사들은 해저케이블 공급·시공, SOV, 풍력 모듈, 항만 운영을 연계한 해상풍력 밸류체인을 강화하게 됐다. 또한 해상풍력 산업의 핵심 인프라 경쟁력을 높이고, 서해안 HVDC 해저케이블 프로젝트 수주 경쟁력도 한층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홍영호 LS머트리얼즈 대표는 “해남 설치항만은 글로벌 기업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인프라로, 서해안이 해상풍력 산업의 전진기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희준 기자 nauta@

대한항공, ‘날아다니는 지휘소’ 만든다

방사청 ‘항공통제기 2차사업’ 수행
“특수임무 항공기 산업 기반 조성”

대한항공은 미국 방산업체 L3해리스와 만든 컨소시엄이 방위사업청 ‘항공통제기 2차 사업’ 수행업체로 지난달 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항공통제기는 고성능 레이더를 탑재해 ‘날아다니는 레이더 겸 지휘소’로 평가받는 주요 항공 자산이다.

이번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의 주 계약자인 미국 항공·방산 기업 L3해리스는 대한항공, 이스라엘의 IAI ELTA와 협력해 우리 공군이 원하는 항공통제기 4대를 2032년까지 공급한다.

대한항공은 국내 협력 업체로서 기본 항공기인 봄바디어사의 글로벌 6500 4



항공통제기 예상 이미지.

/대한항공

대를 구매해 L3해리스에 제공하고, 1·2호기 공동 개발 및 3·4호기 국내 개조를 담당한다. 전자전기 사업 포함, 항공기 6대를 구매하게 될 예정이다.

항공통제기는 고성능 레이더를 탑재해 ‘날아다니는 지휘소’로 불린다. 국토

전역에서 주요 목표물을 탐지·분석하고, 공중에서 실시간으로 군의 작전을 지휘·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항공통제 임무를 위해 개조된 고고도 장거리 비즈니스 제트기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최첨단 레이더 기술을 사용해 공중 전투관리를 지원한다. 더 높은 고도에서 더 빠르고 오랜 시간 비행하지만 낮은 비용으로 영공 방위를 담당하게 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항공통제기 사업을 통해 최신 특수임무 항공기의 개조·통합 및 정비 기술을 확보하고, 국내 항공산업의 선도 기업으로서 국방력 강화를 위한 대형 특수임무 항공기 산업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KCC, ‘코마린’ 참가… 친환경 도로 소개

실리콘 방오도로·단열재 등 전시

KCC가 21일부터 24일까지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리는 국제 조선 및 해양산업 전시회 ‘코마린(KORMARINE) 2025’에 참가해 친환경 도로 등을 선보인다.

20일 KCC에 따르면 부산 벡스코 1전시장 2번 홀(부스번호 2F53)에 부스를 마련하고, 선박도로 기술력과 제품 라인업을 국내외 고객사에 선보인다.

KCC는 이번 전시회에서 친환경 실리콘 방오도로 ‘MetaCruise BF’ (Biocide Free)와 선박용 단열재를 주요 전시

품으로 소개한다.

올해 출시한 MetaCruise BF는 방오제를 사용하지 않은 실리콘 방오도로다. 제품은 선체 표면의 마찰 저항을 최소화하고 연료 효율을 높이며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도로로 주목받고 있다.

KCC는 또 선박의 내화 및 단열 성능을 높이는 무기 단열재 제품군도 함께 선보인다. 국내(KS)는 물론 일본(JIS), 유럽연합(CE) 등 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품질·성능·안전성을 인증받은 미네랄울·세라크울·그라스울제품이 대표적이다.

/김승호 기자

대동-두산로보틱스, 농산업 로봇 사업 맞손

온디바이스 AI 공동 개발 등 협력

대동의 로봇 자율주행 플랫폼과 두산의 로봇 팔이 만나 새로운 농산업 필드로봇을 탄생시킬 전망이다.

대동은 두산로보틱스와 ‘온디바이스 AI 기술 공동 개발 및 농산업 로봇 분야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스마트팜 및 실외 작업 환경에 특화된 자율이동 조작로봇(AMR)을 공동 개발하고, 글로벌 필드로봇 시장 개척을 위한 기술·사업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양사는 ▲스마트팜 농작업용 필드로봇 개발 ▲일반 산업용 필드로봇 개발



지난 1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두산로보틱스 이노베이션 센터에서 열린 체결식에서 원유현 대동 대표(왼쪽)와 김민표 두산로보틱스 대표가 협약서에 서명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동

▲온디바이스 AI 개발 ▲필드로봇 글로벌 시장 공동 개척 등 4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중견기업계 “세제·금융 등 지원 절벽 여전”

중견련 중견기업법 2주년 학술대회
“산·학·관 협력 통해 실효성 높여야”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인 ‘중견기업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현실과 이론, 정책 개선을 연계하는 산·학·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중견기업계 의견이 나왔다.

20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5년 추계 중견기업법 상시화 2주년 기념 공동학술대회’에서

“2014년 ‘중견기업법’ 시행 이후 2013년 3846개였던 중견기업이 2023년 5868개로, 고용은 116만1000명에서 170만4000명, 수출은 877억 달러에서 1182억 달러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많은 중견기업이 세제, 금융 등 여러 분야에서 지원 절벽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견기업법에 명시된 선순환하는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중견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제·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선 기업·학계·정부가 보다 긴밀한 소

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기업의 성장과 법적 쟁점’을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선 ‘중견기업법의 현황과 과제’ 등 현행 중견기업법의 한계와 개선 방안에 관한 학계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펼쳐졌다.

김대홍 숭실대학교 교수는 “중견기업법의 현황과 과제” 주제 발표를 통해 “중견기업 육성 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관련 부처 변경 등으로 정책적 일관성이 다소 미흡했다”면서 “정책의 불연속성을 해소하고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 육성 방안, 지원 체계 및 실행 주체 등 명문화화를 통한 법의 실질적 실행 능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